

광주 영구임대주택 입주 10년 걸린다

20년간 신축 없어... 5월 대기자 4500여세대 '대책 필요'

내년 5월 414세대·하반기 786세대 준공 '그나마 숨통'

광주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10년을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장기입주대기자 해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보급자리 주택건설에 나섰다. 내년에 가사여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4170세대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망이다. 현재 금호시영 3단지, 쌍촌 시영 등 3곳의 3500세대는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하남 주공, 각화 주공 등 8개 단지의 1만 670세대는 LH가 운영중이다.

영구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575세대로, 이 대

자 수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4820세대에서 지난해 말은 4491세대로 4000세대가 넘는다.

평균 대기 기간도 39.6m(12평)은 2~3년인 반면 46m(14평)은 3~5년, 56.1m(17평)은 무려 7~10년이 걸린다. 광주시는 "그나마 작은 평수는 입주 물량이 나오는 데 상대적으로 큰 평수는 빈집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2014년 9월 준공한 효천 주공 영구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지가 모두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이다. 사실상 20년 넘게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2014년과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1200호 건설에 나서 이르면 내년 5월 하남 시영(414세대)이 준공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영구임대 주택은 농성시영, 주월시영으로 각 498세대, 288세대며 규모는 29.7m~39.6m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달 평균 100세대 남짓 전·출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차가 있어 장기 대기자가 불가피하다"며 "보급자리 주택 건설이 마무리되면 상당 부분 장기 대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대서양~태평양 잇는 파나마 운하 102년만에 확장 개통 현대삼호중, 첫 통과 선박·갑문 제작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름길, 파나마 운하가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개통했다. 특히, 영입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새 운하 첫 통과 선박을 건조하고, 운하의 핵심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의 인연도 주목 받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칠레, 대만 등 12개국 정상을 포함한 68개국 정부 대표, 초청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운하의 태평양 쪽 관문인 코콜리 갑문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은 이날 오전 대서양 쪽 관문인 아구아 클라라 갑문을 통과한 포스트 파나마급 선박이 태평양 쪽 관문인 코콜리 갑문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통식 당일 새 운하를 처음으로 지나간 선박은 지난 11일 그리스 동남부 항구 도시인 피레아스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계 '코스코 쉬핑 파나마'호로, 적재 규모가 9472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한다. 세계 4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1월 건조를 마치고 중국 선사에 인도한 이 선박은 지난 4월 파나마운하의 주점을 거쳐 개통식 통과 선박으로 선정되자 선박명을 안드로니코스에서 변경했다.

파나마는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는 방식을 택해 2007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9년간 52억5000만 달러(약 6조1600억 원)를 투입해 새 운하를 완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총 공사비의 60%를 차지하는 갑문 공사를 맡은 스페인계 사르 컨소시엄의 발주로 선박의 운하 통과 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형수문 158개와 유압장치 158세트를 제작해 설치했다. 칸막이벽 84개와 이물질막이 등을 포함해 총중량 2만t에 달하는 기자재도 현대삼호중공업이 시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파나마 새 운하에 들어가는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핵심 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6일 개통된 파나마 새 운하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향우단체, 문화전당 알리기 나선다

임항순 靑문화도시 조성위원장 제안...내일 시도향우회 등 방문

문화전당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회 돌아오고 싶은 광주, 애환이사 초청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전국호남향우회 중앙회,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전국련), 제10회 행정고시동기회 등 80여명이 참가한다. 류목기 전국련 대구경북회장도

동행한다. 전국련은 전국 16개 재경(在京) 시도향우회의 연합체로, 임원과 회원 등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문화전당을 전국에 알리고 타 지역민들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전당에서 주요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전국련 대표총재를 맡고 있는 임항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화전당에서 '지역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윤종운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상임고문, 공형욱 전 경기도호남향우회장, 류재한 전남대교수, 서준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각각 발제한다. 임항순 조성위원장은 "호남은 물론 타 지역 향우회 단체 간부들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문화전당과 광주·전남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은 백제 불상"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 논문서 주장

7세기에 제작된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백제 불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27일 발간한 논문집 '미술자료' 제89호에 게재된 논문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변주(變奏)'에서 "국보 제78호 상의 국적에 대해 아직 확실한 해답이 없으나, 조심스럽게 백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나라 주구(中宮) 소장 목조반가사유상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된 국보 제78호 상은 그간 신라, 고구려, 백제 제작설이 제기됐으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불상이 쓰고 있는 일월식(日月飾) 보관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봉보주(寶寶珠-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보살상에서도 보이고, 백제에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나가노 현 간소인(觀松院) 반가사유상에서도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해와 초승달 모양이 결합한 형식의 일월식 보관은 국보 제78호 상의 특징으로,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상)의 무늬가 없는 보관과 구별된다. 그는 "반가상의 천의(天衣-보살이 입



는 얇은 옷)가 몸 뒤에 길게 U자형으로 늘어진 모습도 백제의 봉보주보살상에서 흔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보 제78호 상이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의 장식을 보면 정사각형 안에 동그란 문양이 연속돼 나타난다"며 "비슷한 팔찌를 국립중앙박물관의 소형 금동반가사가 백제계로 알려졌고, 간소한 반가상의 목걸이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농법인 녹색계란 "하림 덕분에"

가공·판로 등 상생협력...창립 6년만에 흑자 전환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농협회사법인 녹색계란(주)이 창립 6년만에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남도는 27일 "위생·가공·유통에 취약한 녹색계란을 대기업 하림(주)이 2013년부터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뒤 매출이 늘면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녹색계란(주)은 지난 2009년 산란계를 키우는 28개 농장주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남도는 계란의 유통구조 현대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등 27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계란(주)은 식용란 수집·판매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주력하면서 지난 2013년 말까지 11억4900만원의 누적적자를 불경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수요처 발굴, 위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액란 등 계란 가공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액란은 계란을 깨뜨려 내용물을 살균 후 용기에 충전해 냉장 유

하는 알가공품으로, 과자나 가공식품의 원료가 된다. 닭고기 사육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하림이 녹색계란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3년 말부터다. 하림은 축적된 농장 사양관리와 공장품질관리시스템을 녹색계란에 전수하고, 고부가가치인 액란 수요처를 발굴해 녹색계란에 소개했다. 올해 7억원 추가투자에 지난 2012년 지은 액란공장 가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상생협력 덕분이다.

지난 2013년 말 매출 40억원에 불과했던 녹색계란은 2015년 73억41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2억원 목표를 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한 녹색계란이 하림의 도움으로 점차 경영이 개선됐다"며 "농업법인과 기업 간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로 손색이 없으며, 이 같은 사례를 더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d@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인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환 문화사업 자재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방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서구 양동 월산사거리 지하층~5층 숙박시설(원룸가능) 대지 175평 건물 425평 ▶ 감정가 11억 최저가 4억9천만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급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물. 투자수익 프랜차이즈 추천 ▶ 거래가 18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전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0평 토지 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관리 전원주택마을이구 도로접 임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적합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